

지난해 11월 21일 (주)한국하인즈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팀 맥킨레이(Tim Mckinlay)씨를 만나 취임소감과 향후 한국하인즈의 영업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국제적인 마케팅 전문가로 알려진 맥킨레이사장은 국제 감각을 지닌 비즈니스맨답게 취임 후 1개월여 만에 회사 전반뿐만 아니라 한국 베이커리업계를 두루 꿰뚫는 업무 장악력을 보여주었다.
<취재 / 오형석 ohs@mbaker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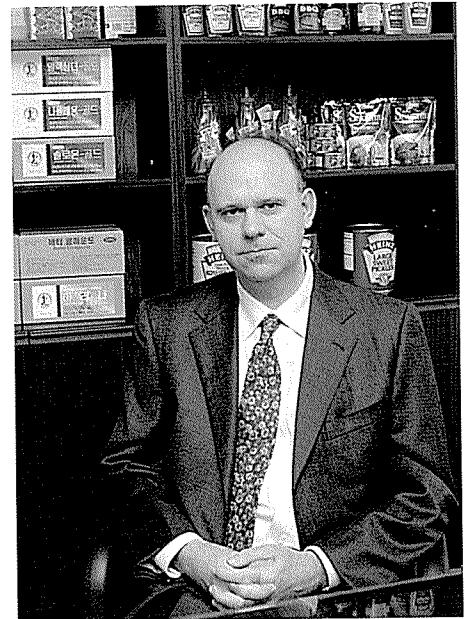
세계시장에서 익힌 마케팅 노하우 “한국베이커리 시장에서 꽃 피울 것”

한국하인즈의 앞으로 경영 방침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며 시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체득했다. 한국 베이커리 시장에서도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영업전략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다양한 마케팅기법을 응용해 한국하인즈의 한국에서의 인지도와 영업 실적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실수요자가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 최우선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앞으로 지켜봐 달라.

신임 사장으로서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부분은.

한국하인즈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제품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상품에 대해서는 리서치를 통해 소비자 기호를 적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들의 아이디어 창출이 중요하다. 참신하고 능동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극 수용할 것이다.



최근 외식시장이 높은 성장세에 있는데 연관 산업과의 접목에 대한 계획은.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다. 젊은이들의 취향이 서구적인 경향으로 바뀌면 음식문화도 함께 변하게 된다. 그들의 기호 변화를 기업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와 인스토어베이커리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독자들이 하이박경연대회에 관심이 많다. 향후 하이박대회의 운영방침과 계획은.

하이박경연대회는 회사로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는 행사다. 4회까지 치뤄오면서 성공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자부한다. 5회 대회도 많은 준비속에서 열릴 것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아직 검토중이다. 기술인력들이 최대한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하이박수상자들의 모임인 '하이박동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화 된 기술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한국 베이커리업계의 기술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가치있는 모임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과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꾸준히 한국하인즈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해 준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하인즈 제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